

북한 발사체 발사에 靑 ‘강한 우려’ 표명

문재인 정부가 2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재개하고, 원산 일대에서 합동타격훈련도 이어간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101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에 보건 분야 협력 제안을 한 지 하루 만에 미사일 발사로 화답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일 오후 1시 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지도통신망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지난달 28일 합동타격훈련 실시 배경과 의도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국가자원 총동원’ 군병원 방문

文 대통령 코로나19 상황 점검

신임 간호장교 훈련현장 찾아
임관 직후 대구 파견 등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국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국군대전병원은 국내 확진 환자 증가에 따라 민간 확진자를 받기 위해 지난 달 20일부터 ‘국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2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 환자 34명(군인 13명, 민간인 21명)이 치료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에서 석용 국군의무사령관과 이재혁 국군대전병원장, 국방부의 코로나 19 범정부 대응 지원을 총괄하는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으로부터 코로나 19 대응 체계와 군의 주요 조치사항, 군의 코로나 19 지원 현황과 군 의료 범정부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군이 코로나 19 대응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과 국군 장병이 휴식도 잇는 채 현장에서 범정부 대응을 지원하는데 격려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 참관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문 대통령은 국군대전병원 내 간이음압격리병실과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무하차 검체채취소에 둘러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군대전병원이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만큼 문 대통령의 방문은 ‘국가 가용 자원 총동원’이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국군간호사관학교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임장교 훈련 현장을 사전 공지 없이 깜

짝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신임 간호장교가 임관 직후 대구로 파견가는 점에 대해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일 소위로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 75명은 대구에서 코로나 19 환자와 의료 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임 간호장교들은 전원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들로, 교육기간 4년간 전국 유명 병원과 보건소, 미군 병원 등에서 1,080 시간에 달하는 임상 실습을 마친 우수한 인재들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세종대학교 LINC+ 사업단은 최근 교내 집현관 10층 소회의실에서 LINC+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대 LINC+ 사업단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세종대학교 LINC+ 사업단은 최근 교내 집현관 10층 소회의실에서 LINC+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세종대 LINC+ 사업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하는 최고 위원회로, 2019년에 신규로 선정된 세종대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호스피탈리티TM 트랙, 스마트FM 트랙, 글로벌CGI애니메이션 트랙)에 대한 이슬기 사업단장의 결과보고, 토론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2020년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LINC+ 트랙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실시 ▲참여 학생들의 편의와 내·외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 ▲참여기업과 학생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를 위한 정기행사 추진 등의 안건들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발전과 대내외 홍보효과 제고에 대한 기반 역시 마련했다. /한용수 기자

20억 톡큰 기부에 원격수업까지... 교육업계 지원 총력

교원구문, 업계 최초 20억 성금
취약계층에 교육품·세정제 지원
윤선생, 전화·화상으로 학습관리
웅진씽크빅, 학습 영상 무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우려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부모와 학생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업계가 학습 공백 차단 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원구문은 코로나19 확산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 취약 아동에게 20억원 규모의 교육 물품과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한 기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원의 이번 지원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교육 업계 지원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각계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아동들에 지원의 초점을 뒀다. 기금을 통해 교원구문은 교육 물품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교원구문 안심KIT’를 지원한다. 교원구문 안심KIT에는 간편식을 비롯해 손세정제, 제균 티슈 등 위생용품이 들어있다.

교원구문 관계자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동참하며, 특히 누구보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며 “앞으로도 교원구문은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 환경과 기초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구문을 비롯한 교원그룹은 지난 2001년 인연사랑 캠페인을 시작으로 20년간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날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도 학교 개학일까지 초등 학습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웅진씽크빅은 기업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올TV’를 긴급 개설, 유료 디지털 학습 영상을 3월 2일부터 개학일까지 무상 공유한다. 매일 오전 9시 학년별로 학습해야 할 과목의 개념학습 영상이 업데이트된다. 초등 전 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통합교과뿐만 아니라, 영어, 독서, 고전, 한국사 등 특별 학습 콘텐츠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과 웅진스마트올 홈페이지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동 기간 내 웅진씽크빅과 웅진북클럽 회원에게 보유한 학습패드로 도서 및 전과목 종합 학습 온라인 콘텐츠 추가로 학습할 수 있게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회원에



웅진씽크빅이 학교 개학일까지 초등 학습 콘텐츠 무상 제공한다. /웅진씽크빅 스마트올TV

게 제공하는 생각라이브러리 도서 콘텐츠와 AI 전과목학습인 웅진스마트올 콘텐츠로 구성된다. 담당교사의 우선 코칭을 연결해 교육 공백이 우려되는 회원들의 자가 학습도 도울 예정이다. 학습패드가 없는 경우 무료로 패드 대여 신청도 가능하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학습 콘텐츠 확대 제공, 우선, 화상 관리 강화 등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학부모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사 방문학습 브랜드인 윤선생영어교실과 윤선생 웹스터디는 관리교사의 가정 방문관리를 화상관리 또는 전화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 2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화상이나 전화로 학습관리가 어려운 회원의 경우, 당분간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진행한 뒤 추후 빠진 횡수만큼 방문관리를 보충해준다. 관리 방식 변경을 원치 않는 회원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방문관리를 유지할 방

침이다. 윤선생 관계자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중단의 결정이 쉽지 않은 자녀의 학습 문제만 만큼 학부모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 이 같은 긴급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가정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시한 뒤 동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생은 특히 전국 1700여 개의 학원과 공부방 브랜드 가맹센터에 이미 출고 완료된 휴원 회원의 교재와 음원 사용료에 대한 본사 납입금을 면제하고 납입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에도 나섰다.

대교어린이TV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습하며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홈스쿨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의 역사공부를 돕는 ‘히스토리 AR’과 ‘주니의 뉴욕 일기’ 등 대교어린이TV 자체 제작 콘텐츠를 비롯해 ‘한자톡톡’, ‘스쿨수학’, ‘눈높이한국사’ 등 역사, 수학, 영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 등 총 46종 900여 편을 선보인다.

/한용수 기자 hys@

연성대 ‘진로탐색학점제 사업’ 선정

연성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활동을 설계·수행하고 이를 평가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최대 3년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연성대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에는 5가지 진로탐색유형(셀프로드형, 분야융합형, 산학연계형, 창업준비형, 사회기여형)에 11개 학과 27개팀, 70명의 재학생이 참여할 계획이며, 교비 매칭 예산을 포함해 총 5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대교어린이TV 초등생 홈스쿨링 프로그램 편성

대교어린이TV는 아이들이 집에서 학습하며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및 초등 교육 과목에 기반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홈스쿨링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의 역사공부를 돕는 ‘히스토리AR’과 ‘주니의 뉴욕 일기’ 등 대교어린이TV 자체 제작 콘텐츠를 비롯해 ‘한자톡톡’, ‘스쿨수학’, ‘눈높이한국사’ 등 눈높이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또한 ‘우리 옛 이야기 탐험’, ‘세계명작컬렉션’ 등 대교 상상Kids 동화 콘텐츠와 역사, 수학, 영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 등 총 46종의 900여 편의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용수 기자